



급식·식자재 업계
악재 대비
수익처 다변화
니



Life

봄 건강 특집
환절기 건강관리
간편하게 챙겨요
L2



꿈 키우고, 환경 가꾸고... 빛나는 내일 만드는 '따뜻한 금융'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는 지난 202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 라이프생명이 합병하면서 출범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경영으로 고객의 신뢰 속에 지속 성장하는 보험사가 되고자 '뉴 라이프, 라이프(New Life, Life)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다'라는 비전을 정했다.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어려운 고객과 이웃을 돕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라이프는 "금융 본연의 업(業)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금융'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며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재능클래스'...스포츠 재능 발견 지원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 흥미를 키우고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내에 연간 스포츠 교실을 운영해 아이들의 재능 발견을 지원한다. 다양한 스포츠 수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발견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응원한다.

재능클래스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인 아동·청소년을 신한라이프장학프로그램 '꿈 찾기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해 재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의 사회공헌재단인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3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2024 신한라이프재능클래스' 후원금 4억원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선정된 기관 43곳에서 스포츠 37개 종목과 문화·예술 17개 분야의 수업에 참여하는 약 700여명의 아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① 지난 3월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김순기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 사무국장(왼쪽)과 이수경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② 지난해 10월 서울시 중구 청계천에서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소재 신한라이프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영중 신한라이프 사장(첫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임원 및 신입사원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취약계층 아동들에 교육기회 제공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 꿈나무 육성

임직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아동청소년 시설 개·보수 환경개선 장애인 복지기관에 휠체어 기증도

환경정비활동 등 청계천 가꾸기 봉사 서울-한전과 거리 아트갤러리 조성 발달장애인 작가 작품 전시, 자립 도와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동이용시설 230곳에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우수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은 장학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지속적으로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빛나는봉사단'...임직원 참여형 캠페인 '신한라이프빛나는봉사단'은 신한라이프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환경개선 캠페인이다. 서울 시내 노후화된 아동·청소년 시설을 개·보수해 우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한라이프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을 통해 작년 10월과 지난 3월 각각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 75대를 기증하고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한 바 있다.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취약계층 지원과 탄소저감 활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직원이 캠페인 기간 동안 걸음기부 목표를 달성하면 장애인복지기관에 휠체어를 기증하고 이와 연계해 숲을 조성하는 참여형 기부 캠페인이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중구장애인복지관, 밀알복지재단,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등 3개 기관에 75대의 휠체어를 전달했다. 올해는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4주간 임직원이 일상생활 걷기를 통해 5000만 보를 달성할 경우 보행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 제작 신발을 기부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빛나는한걸음 캠페인은 건강도 챙기고 환경보호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자발적 참여에도 임직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한라이프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진정성을 담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환경개선'...휴식 및 예술 공간 조성 신한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설공

단과 '청계아띠'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청계천 가꾸기에 동참하고 있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의미로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지난 5일 신한라이프는 시민 휴식공간을 개선하고자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주관하는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약 30여명이 참여해 청계광장 분수 구조와 행운의 동전던지기 모형인 팔석담에 겨우내 쌓여있던 이끼를 청소했다. 청계천 일대의 거리화분, 피녹지대 등에 다양한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청계아띠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일 서울시 중구청,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 한국전력공사와 '거리 아트갤러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거리 아트갤러리는 발달 장애인 작가의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서울시 중구 거리에 있는 한전 지상기침함에 부착해 지역사회의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신한라이프는 거리 아트갤러리 조성을 위해 설치 비용과 발달 장애인 작가에게 지급되는 작품 창작비로 1억원의 기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SG경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갤러리 제작 시 친환경 원재료를 사용한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창작물에 대한 보상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일전 승리하면 '파리행' 길목서 '한국인 사랑탑' 맞대결
▲ '더블A' 고우석, 1이닝 2실점 역전 허용...시즌 2패째 /사진 뉴시스

▲ 이건희컬렉션 '임진진찬도'·보물 '서직수 초상' 공개
▲ 지휘자 이승원, 말고국제콩쿠르 한국인 첫 우승



▲ 문체부, 9월 '대한민국 미술축제'... '통합 홍보·관광상품 개발'
▲ 5월8일부터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 /사진 뉴시스